지역 소식통

고창군, 비전다짐의 날 행사

박우정 고창군수가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다짐의 날' 행사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건의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며 활기찬 군정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 먼저 선점하고 고창군이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열정을 발휘해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박 군수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들더라도 항상 한 발 앞서나가는 자세로 생동감 있는 군정 추진과 업무처리에 임할 것을 강조하고 징검다리연휴를 맞아 많은 방문객들이 가족과 함께 '제14회 고창 청보리밭축제'와 고창읍성 철쭉꽃, 고창갯벌, 운곡습지 등을 찾아오고 있으므로 더욱 친절하고 쾌적한 손님 맞이에도 힘써 지역 경쟁력을 높여갈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대회 기념식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대회 기념식이 1일 부안군 백산면 백산고등학교 강당에서 김종규 부안군수를 비롯하여 김원철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장 등을 비롯한 많은 내빈과 출향민, 면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백산면 동학기념탑 헌화 및 백산고등학교에서 계동마을 입구까지 백산농악단을 선두로 한 동학농민군 가두행진 재현, 설장고 식전공연, 기념식, 녹두장군 전봉준 재현 공연 등을 통해 조상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보건소, 생활터 건강코너 '호응'

정읍시보건소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터 건강코너'가 호응을 얻고 있다.

건강코너는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민들을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는 기관에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을 통해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를 돕는다는 취지다.

특히 기초 검진과 더불어 영양 교육,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다.

건강코너에서는 정읍 농협 연지동?상동지점, 우체국에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시기동 로컬푸드매장에서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설장고 명인' 고은 이동원 선생 추모

전국농악경연대회 5일 개최

부안초 운동장서… 전국 유명 농악 팀 10개팀 출전

대한민국 설장구 명인 고은(鼓隱) 이동원(1922~1990) 선생을 추모하는 제5회 전국농악경연대회가 5월 5일 부안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진다.

부안농악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7호로 부안농악의 설장구 명인이었던 고은 이동원 선생을 추모하는 경연으로 민족의 혼과 숨결이 담긴 우리 가락을 계승·발전시키고 생활의 멋과 애환이 깊게 베여 있는 호남 우도 '부안풍물'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경연대회는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국 유명 농악 팀 10개팀이 출전해 일반농악(풍물) 20분 내외로 진행된다.

타 대회는 참가팀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회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회에는 강원 춘천, 경북 청도 등 전국에서 참가팀이 잇따라 접수하면서 그 명성을 입증하고 있다.

시상은 일반부 고은(鼓隱)대상(국회의장 상)과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우수상(전북도지사상), 장려상(부안군수상) 등이 주어진다.

이옥수 부안농악보존회장은 "우리 가락의 대중화와 후진양성에 헌신하신 고은 이동원 선생의 뜻을 기리는 대회로 기량이 뛰어난 전국의 풍물인과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져 신명나는 경연의 장을 마련했다"며 "부안농악보존회는 전통농악을 널리 알리고 육성해 그 명맥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동학농민혁명 50주년 특별기획 창무극 '천명'

황토현전적지 제세문 앞 12일부터 13일까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창무극 '천명'이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이하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50주년 특별기획으로 공연된다.

'천명'은 도올 김용옥(철학자) 대본, 국악 작곡의 대가 박범훈(전중앙대총장) 작곡 의 작품이다. 여기에 최고의 창극·마당극 연출가인 류기형이 연출을 맡고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장인 조통달이 예술감독, 대한민국 창극계의 국민배우 왕기석(정읍시립국악단장)이 제작 총감독으로 참여한다.

또 최고의 광대 집단 마당극패 '우금치'와 역사와 품격을 자랑하는 전북도립국악원예술단과 정읍시립국악단원들이 참여한다.

'천명'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 간 황토현전적지 제세문 앞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공연된다.

저녁 7시 45분에 막이 올라 140분간 공연될 예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관람 할 수 있다. 단, 관람을 희망하는 관객은 7시 30분까지 객석에 입장해야 된다. 공연 관람객에게는 동학군 주먹밥(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천명은 이번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외에도 올해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에도 공연된다.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소리문화의 전당 야외놀이마당에서 3회에 걸쳐 공연될 예정이다.

천명은 총 2부로 구성돼 있고, 각 부는 각 8장으로 구성돼 있다.

왕기석 제작 총감독은 "'60 갑자가 두 번 지난 2017년은 동학농민혁명 123주년의 정신을 재조명하는 작품이 절실한 때이다"며 "이번 공연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기여함은 물론 민족정신과 예술혼이 담긴 '천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 예술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이달 말 준공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고창군 장애인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현재 공정율 90%로 실내마감 및 부대토목공사가 한창이다.

장애인복지관은 고창읍 율계리 110-1, 113번지에 부지면적 3,428㎡, 건축연면적 1,598㎡, 지상 2층으로 국·도비 12억 등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5700여명의 고창군 장애인들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그동안 도내에서는 순창군, 임실군, 고창군이 건립되지 못했으나 군은 박우정 군수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5년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5월 착공해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군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공청회와 장애인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했고, 준공 후 오는 7월 개관을 위해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 운영예산도 8억원을 확보하여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화사한 갓꽃, 상춘객 불러 모으다

정읍 산내면 국도 30호선 도로 옆 '대당금 꽃밭'

"정읍과 전주에서 산내면 구절초테마공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노랗고 화사한 갓꽃이 활짝 피어 상춘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산내면이 지난해 가을 소재지 국도 30호선 도로 옆 6만6000㎡, 일명 '대장금 꽃밭'에 뿌린 갓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면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일대 크고 작은 산맥들이 펼치는 수려한 경관과 잎의 녹색, 꽃잎의 노란색이 대비된 선명함이 꽃의 계절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기분 좋은 경쾌함을 선사하고 있기도 하다.

산내면은 사계절 대장금 꽃밭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가을 갓꽃씨를 파종했고, 올 가을에는 해바라기와 코스모스를 심어 10월 초 구절초 개화기와 전국 최고 가을축제인 구절초 축제시기에 맞춰 구절초테마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방침이다.

산내면(장금리)은 조선왕조 중종(中宗)의 총애를 받은 의녀(醫女)로 알려진 대장금의 고향이다. 역사학자 권희덕 씨에 의해 발간된 '대장금마을의 향약 역사'란 책자에는 역사속에서 장금이는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에서 태어나고 조선 중종 때 입궁해 조선 최고의 어의녀가 됐다고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산내면에는 '장금리'라는 법정리가 있고, 시는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대장금 관련 스토리텔링에 나서는가 하면 대장금 마실길 조성, 대장금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완료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7일 고창서 개최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간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도립공원 생태숲에서 '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 「BioBlitz Korea 2017」'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생물종조사 행사인 바이오블리츠(BioBlitz)는 생물분야 권위자들과 아마추어 일반인이 함께 모여 2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생물종을 찾아 목록으로 만드는 과학 참여 활동이다.

한국에서는 2010년 경상북도 봉화에서 시작해 경기도 가평, 강원도 대관령, 강원도 청태산, 서울시 서울숲, 울산시 태화강대공원, 강원도 양구군 DMZ펀치볼둘레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

특히 작년에는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라 불리는 DMZ 일원에서 개최하여 24시간 만에 신종으로 추정되는 식물과, 곤충 미기록종 두 종을 포함하여 총 1,541종을 발견했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과 고창군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가 대표로 주관한다. 또한 환경과 과학정보의 대표 매체인 동아사이언스와 한겨레가 이 행사를 후원한다.

참가자 접수는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누리집(www.bioblitz.or.kr)에서 선착순으로 받으며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032-575-6433)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행사에도 생물학자들과 함께하는 워크(Walk) 프로그램, 토크(Talk) 프로그램 이외에 생물다양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생물다양성 한마당」을 '전북 생명의 숲'과 '전북산림환경교육센터', '전북환경교육네트워크'와 함께 운영한다.

/고창=김영식기자